

인사이트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왜 PTC를 226억 달러에 사는가

설계 데이터와 공장 운영 데이터를 한 회사에 묶으려는 것입니다

방동걸 (주)웨이스 대표이사

2026년 10월 19일

프랑스 전력·자동화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미국 산업 소프트웨어 회사 PTC를 인수합니다. 두 회사는 2026년 10월 5일 공동 보도자료에서 슈나이더가 PTC 주식 전부를 주당 205달러, 전액 현금으로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분 가치는 약 226억 달러이고, 부채를 포함한 기업 가치는 237억 달러입니다. PTC는 제품을 설계하는 CAD와 설계 데이터를 관리하는 PLM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입니다.

제조 AI 운영체제 VEXPLOR를 만드는 웨이스가 이 거래에서 눈여겨본 것은 금액보다 슈나이더가 밝힌 인수 이유입니다. 슈나이더는 공장을 운영하는 데이터는 이미 확보했고, 빠져 있던 것이 제품을 설계하는 데이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거래 조건, 슈나이더가 몇 년에 걸쳐 모은 소프트웨어 회사들, 설계와 운영 데이터를 한곳에 두려는 이유, 그리고 회사를 살 수 없는 중소 제조사가 같은 일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짚습니다.

01

슈나이더는 PTC 주식 전부를 주당 205달러에 현금으로 삽니다

보도자료에 적힌 거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은 모두 슈나이더와 PTC가 발표한 값입니다.

항목	값	비고
주당 인수가	205달러	직전 종가 대비 42.3% 높음
지분 가치	약 226억 달러	약 201억 유로
기업 가치	237억 달러	부채 포함
비용 절감 효과	연 2억 5천만 유로	3년 차 기준
매출 확대 효과	약 8억 유로	교차 판매 등
거래 종결	2027년 3분기 예정	주주·규제 승인 필요

PTC의 대표 제품은 3D 설계 소프트웨어 Creo와 PLM 소프트웨어 Windchill입니다. 보도자료는 PTC가 설계(CAD)와 설계 데이터 관리(PLM)에 더해 제품 속 소프트웨어의 개발 이력(ALM)과 출고 뒤 서비스·부품 이력(SLM)까지 다룬다고 소개합니다. 제품을 처음 정의할 때부터 고객에게 넘어가 정비를 받을 때까지의 설계 기록을 한 회사가 맡는 셈입니다. PTC의 고객사는 전 세계 3만 곳이 넘고, 2025년 매출은 24억 유로였습니다. 이 매출은 IoT 플랫폼 ThingWorx와 산업 통신 소프트웨어 Kepware를 뺀 값입니다. 슈나이더는 이번 인수로 소프트웨어·서비스 매출이 그룹 매출의 약 24%까지 커지고, 산업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노릴 수 있는 규모가 약 3배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은 계약 단계입니다. PTC 주주총회와 각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거래가 끝납니다.

02

슈나이더는 공장 운영 데이터를 먼저 모았고, 마지막으로 빠진 것이 설계 데이터였습니다

슈나이더의 산업 소프트웨어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서를 보면 이번 인수의 뜻이 드러납니다.

회사	맡는 데이터	슈나이더 편입
AVEVA	공정·설비 운영	2023년 1월 완전 인수
Cognite	산업 데이터 연결	2026년 인수 발표
PTC	제품 설계·PLM	2026년 10월 발표

AVEVA는 공장과 플랜트의 공정·설비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슈나이더는 2017년 AVEVA의 최대 주주가 됐고, 2023년 1월 나머지 지분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2026년 여름에는 노르웨이 기업 Cognite를 약 31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Cognite는 공장 곳곳에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 AI가 쓸 수 있게 정리하는 회사이고, 이 거래도 아직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공장이 **가동되는 동안** 생기는 데이터입니다. 설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공정 값이 얼마였는지, 에너지를 얼마나 썼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제품이 **어떻게 설계됐는지**는 이 데이터에 없었습니다. 슈나이더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거래가 「제품 수명 주기와 산업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의 빈 곳을 채운다」고 적었습니다.

03

슈나이더가 밝힌 인수 이유는 AI 에이전트에게 줄 맥락입니다

슈나이더가 이 거래를 설명하며 내세운 표현 하나는 「디지털 스레드」입니다. 제품을 설계하고, 만들고, 운영하고, 정비하는 모든 단계의 데이터를 한 흐름으로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보도자료는 PTC가 들어오면 제품과 기계의 설계 데이터가 슈나이더의 공정·에너지 데이터와 합쳐져 AI가 바로 쓸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하나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더 직접적인 문장도 있습니다. 슈나이더는 설계 의도와 실제 운영 맥락을 연결하면 AI 에이전트가 고객의 생산성·회복력·효율·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믿을 수 있는 맥락이 생긴다고 적었습니다. 설비 데이터만 보는 AI는 값이 흔들리는 것은 알아도 그 제품의 설계 공차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도면만 보는 AI는 라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두 데이터가 같은 제품·같은 부품 번호로 묶여 있어야 AI가 「이 흔들림이 불량일 만한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계 데이터와 공장 운영 데이터가 같은 부품 번호로 묶이면 AI가 둘을 함께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PTC의 닐 바루아 CEO도 같은 방향으로 말했습니다. PTC가 슈나이더에 합류하면 자사의 「지능형 제품 수명 주기」 구상을 더 빨리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쪽과 팔리는 쪽이 같은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4

설계와 운영 데이터가 떨어져 있으면 공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업 소프트웨어 회사가 수십조 원을 들여 두 데이터를 묶으려는 까닭은 떨어져 있을 때 드는 비용이 현장에서 매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 설계 변경이 현장에 늦게 닿습니다 — 도면과 BOM이 바뀌어도 작업지시와 작업표준서가 옛 판으로 남아 있으면 그날 라인은 옛 사양으로 생산합니다. 고객이 보낸 사양서 개정판이 여러 부서를 거쳐야 현장 작업표준서에 반영되는 구조라면 이 시차는 더 길어집니다.
- 불량 원인을 설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 불량 기록에 품번만 있고 설계 판번이 없으면, 그 불량이 설계 변경 전 부품에서 났는지 후 부품에서 났는지 가려낼 수 없습니다.
- 현장과 정비 기록이 다음 설계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 같은 부위에서 고장이 반복돼도 설계 부서가 그 기록을 볼 수 없으면 다음 제품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됩니다.



설계와 운영 데이터가 떨어져 있을 때와 묶여 있을 때, 설계 변경이 현장에 닿는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는 AI를 넣기 전부터 있던 문제입니다. AI가 들어오면 더 커집니다. AI는 연결된 기록만큼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05

중소 제조사는 회사를 살 수 없으니 기록을 묶는 열쇠부터 맞춥니다

중소 제조사가 PLM 회사와 MES 회사를 사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슈나이더가 수십조 원으로 하려는 일의 핵심은 「같은 제품을 설계 쪽과 현장 쪽이 같은 번호로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 쓰는 시스템 안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웨이스가 만드는 VEXPLOR도 품목 마스터 하나를 PLM·MES·ERP가 함께 쓰도록 설계했고, 웨이스가 수주형 PLM과 MES를 함께 구축한 한 제조 공장에서는 로트 추적을 사람 손 없이 시스템이 모두 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웨이스는 공장에 AI를 넣기 전에 아래 열쇠가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1. **품번 체계가 하나인가** — 설계 부서, 생산 부서, 구매 부서가 같은 부품을 서로 다른 번호나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 않은지 봅니다.
2. **BOM에 판번이 있는가** — 같은 품번이라도 설계가 바뀌면 판번이 올라가야 합니다. 판번이 없으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3. **작업지시에 BOM 판번이 함께 남는가** — 그날 어떤 판으로 만들었는지가 생산 실적에 남아야 나중에 불량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4. **설계 변경의 승인일과 현장 적용일을 함께 기록하는가** — 두 날짜의 차이가 곧 설계 변경이 현장에 닿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5. **불량·설비 기록에 품번과 판번이 붙는가** — 운영 데이터가 설계 데이터로 돌아가는 연결은 이 두 항목에서 시작됩니다.

설계 변경이 현장에 닿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지금 있는 기록으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설계 변경 10건을 골라, 건마다 설계 승인일과 새 판번으로 첫 작업지시가 나간 날을 나란히 적어 봅니다. 두 날짜를 모두 찾은 건이 몇 건인지가 첫 결과입니다. 날짜를 찾지 못한 건이 많다면 그 공장은 설계와 현장이 아직 기록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찾은 건만 놓고 두 날짜의 차이를 보면 어느 부서를 거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다섯 가지 모두 새 소프트웨어 없이 지금 쓰는 엑셀, PLM, MES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갖춰지면 나중에 어떤 시스템을 쓰든 두 데이터를 묶는 일이 수월해집니다.



이 글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06

거래가 끝나도 남는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슈나이더는 이번 결합이 특정 회사의 장비나 소프트웨어에 묶이지 않는 「열린 구조」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결합되는지는 2027년 거래가 끝난 뒤에 드러납니다. 그 사이 PTC나 AVEVA를 쓰는 공장은 계약을 갱신할 때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지, 다른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식이 바뀌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인수가 제조 현장에 주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산업 AI의 경쟁은 더 좋은 모델보다 설계와 운영을 한 흐름으로 연결한 데이터를 누가 먼저 갖추는가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회사를 살 수 없는 공장도 품번과 판번을 맞추는 일로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WACE(웨이스)는 공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멈추지 않게 하는 제조 AI 운영체제 VEXPLOR를 만드는 회사다.

07

함께 읽어보세요

- ERP·MES·WMS가 서로 연결되지 않게 된 길을, 제조 AI는 왜 다시 밟고 있는가
- 고객이 보낸 사양서 개정판은 제조기업 한 곳의 목록에서 부서 5곳을 지나야 현장 작업표준서에 반영됩니다

■ MES-ERP는 있는데 왜 서로 말이 안 통할까 — 솔루션 사일로의 비용

참고한 자료

- Schneider Electric-PTC 공동 보도자료, "Schneider Electric to acquire PTC, creating the next level of Energy and Industrial Intelligence", 2026년 10월 5일 (<https://investor.ptc.com/resources/news/news-details/2026/Schneider-Electric-to-acquire-PTC-creating-the-next-level-of-Energy-and-Industrial-Intelligence/default.aspx>)
- Schneider Electric, AVEVA 완전 인수 완료 공시, 2023년 1월 18일
- Bloomberg, "Schneider to Buy Industrial AI Firm Cognite for \$3.1 Billion", 2026년 7월 1일



원문 blog.vexplor.com/post/schneider-ptc-design-operations-data
발행 2026년 10월 19일 · 방동걸 (주)웨이스 대표이사

회사 주식회사 웨이스 (WACE Inc.) · 대표이사 방동걸 ·
사업자등록번호 439-87-02852
주소 (18462) 경기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150, 에이동(A동)
1702·1706호 (영천동, 실리콘엘리동탄)
연락처 전화 070-4730-0629 · contact@wace.me
홈페이지 wace.me · linkedin.com/company/wace-inc



원문



홈페이지



링크드인